

REVIEW ARTICLE

최근 10년간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분석: JKAN과 ANR 중심으로

장혜영¹ · 송은옥²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¹,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박사수료생²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in a Recent 10-year Period: Focused on JKAN and ANR

Jang, Hye-Young¹ · Song, Eun-Ok²

¹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²Ph.D.,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eports of qualitative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N) and Asian Nursing Research (ANR) and to determine explicit sugges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litative papers. **Methods:** A total of 106 qualitative studies published in JKAN and ANR from 2008 to 2017 was reviewed using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Results:** In the research team and reflexivity, there was a lack of description in relationship building with participants and for researcher assumptions. Regarding study design, pilot tests for interview guideline development and revision of a transcript for clarity were less reported than other items. For analysis and findings, descriptions of number of data coders and diverse cases were insufficient. **Conclusion:** We suggest that researchers consider and describe COREQ items in more detail when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Also, although COREQ are guidelines for reporting qualitative studies, they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ll such research methodolog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evaluation standard including quest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qualitative research.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research; Interview; Focus groups; Analysi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문의 발달은 지식체의 생성과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는 연구수행을 통해 가능하다(McEwen, 2007). 간호학문 역시 간호이론, 실무, 교육의 기초가 되는 간호 지식체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많은 연구를 축적해 왔다. 이를 통해 간호학의 학문적 지향성을 비롯한 고유한 특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타 학문과 구분되는 간호학의 경계를 설정하고 전문직에서 학

주요어: 질적연구, 간호연구, 면담, 포커스그룹, 분석

Corresponding author: Song, Eun-Ok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
Tel: +82-2-2220-1781, Fax: +82-2-2295-1781, E-mail: wkqjr100@hanyang.ac.kr

- 본 연구는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R1C1A2A01053766).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RF-2015R1C1A2A01053766).

Received: Sep 4, 2019 / Revised: Oct 29, 2019 / Accepted: Oct 31, 2019

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었다(Jang, 2005). Suh 등(2007)은 간호학의 지식체 확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체 개발뿐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지식체의 생성 방향을 조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지식체 경향을 분석해왔는데, 무엇보다 간호학 관련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가 많고 간호 지식체의 생성과 발전을 주도해온 학술지를 선택하여 이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국 간호학의 대표성을 지닌 학술지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KAN)과 Asian Nursing Research (ANR)은 한국간호과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로서, JKAN은 1970년에 한국 최초의 간호학술지인 간호학회지로 시작하여, 2008년 10월호부터 JKAN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변경되었고, 영문학술지인 ANR은 2007년 6월에 창간되었다. JKAN과 ANR 학술지 모두 사회과학 인용지수(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SCI)와 과학 인용지수-확장판(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에 등재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우수한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간호학의 연구, 이론, 실무 및 교육 등 전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지금까지 ANR에 출판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JKAN에 출판된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먼저 출판 시기별로 접근하여 분석한 경우로, Choi 등(2000)이 창간호부터 1999년도까지의 논문을 분석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도부터 3년간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Suh et al., 2007)와 2007년과 2008년 2년간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Shin et al., 2010)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해당 연도에 출판된 모든 논문을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간호학 연구의 흐름에 대한 조망을 제공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특정한 요인 중심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경우를 살펴보면, 통계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Kang, 2002), 간호학 지식 분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Jang, 2005)와 논문의 주요어(Jeong, Ahn, & Cho, 2005)를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양적연구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질적연구에 대해 분석한 논문은 2년간 논문을 분석한 Shin 등(2010)의 연구에서 30편의 질적연구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질적연구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연구설계, 철학적인 배경의 진술, 연구자의 훈련, 자료수집방법,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에 그치고 있어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간호학 연구의 새로운 조망을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한 결과

들이 지속해서 보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질적연구를 보고할 때 더욱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연구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표준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연구보고의 질을 향상하고, 출판된 연구물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며, 연구결과의 올바른 적용을 이끌 수 있다(Tong, Sainsbury, & Craig, 2007). 질적연구 보고 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준 보고 양식으로는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CASP)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7)와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Tong et al., 2007)가 있다. 이 중 COREQ는 질적연구의 자료수집방법 중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심층 면담과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연구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총 3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팀과 반영’, ‘연구설계’, ‘분석과 결과’의 영역에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질적연구의 명료하고 포괄적인 보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COREQ는 JKAN과 ANR을 포함한 일부 학술지에서 질적연구 논문을 게재할 때 저자들이 작성해야 할 체크리스트로 권고되고 있으며 (Rao & Tharyan, 2011), 일부 연구자들은 질적연구를 수행할 때 이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하거나(Larson & Cortazal, 2012) 질적연구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Lundgren, Begley, Gross, & Bondas, 2012).

질적연구는 생활세계의 체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방법으로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제공하여 지식체 발전과 실무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Creswell, 2007). 또한, 연구결과는 참여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포함하기 때문에 양적연구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심리·사회적, 문화적 요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규명하여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대상자 중심의 간호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Yi et al., 2018). 그런데도 질적연구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워 간호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오래된 편견으로(Miles & Huberman, 1994), 질적연구의 학문적, 실무적 기여에 대해 온전히 평가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질적연구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고, 연구보고의 질을 향상하며, 연구결과의 올바른 적용을 끌어내기 위해 질적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2008~2017년) JKAN과 ANR에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을 COREQ의 기본 틀에 따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연구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을 COREQ의 기본 틀에 따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의 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등 연구 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팀과 반영' 영역에 대해 분석한다.
-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설계' 영역에 대해 분석한다.
- 분석대상 논문의 '분석과 결과' 영역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을 COREQ의 기본 틀에 따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JKAN과 ANR에 게재된 논문 중 질적연구방법(근거이론, 현상학, 내용분석,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생애사분석, 주제분석)을 적용하여 수행한 연구 총 106편이다.

3. 분석 틀

본 연구는 Tong 등(2007)이 개발한 질적연구 평가 준거인 COREQ를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팀과 반영'의 8개 문항, '연구설계'의 15개 문항, '분석과 결과'의 9개 문항으로, 총 3개 영역, 3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예', '아니오'로 평가하였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연도별 게재 건수, 질적연구방법의 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의 질 확보 기술 여부, 석·박사 학위논문 여부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면제승인(IRB No. HYI-18-109-1)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간호학술지인 JKAN과 ANR에 게재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https://jkan.or.kr>, <https://www.asian-nursingresearch.com>)를 검색하였다. 검색 기간은 최근 10년간의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로 하였고, COREQ가 심층 면담과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연구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과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검색결과 일차적으로 137편의 논문이 확인되었고,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개념분석 15편, Q방법론 8편, 텍스트분석 3편, 이차분석 논문 3편, 총 29편을 제외하였다. 이차적으로 108편 논문의 전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층 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면담을 하지 않은 논문 2편을 제외하여 총 106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의 분석 틀(COREQ)에 대해 연구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으며, 분석기준을 상호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분석기준을 정하였다. 확정된 분석기준에 따라 연구자 각자 모든 대상 논문을 평가하였다. 일차적으로 평가한 분석결과를 검토하면서 두 평가자 간 일치되지 않은 항목과 논문을 재확인하였으며, 여러 차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평가자 간 일치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기술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함께 확인하고 논의하여 최종분석을 완성하였다. 최종 분석한 결과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인 질적연구 106편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JKAN과 ANR에 게재된 총 논문의 수는 1,223편이었으며, 그 중 질적연구 논문은 106편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의

편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2편(9.9%), 2009년에는 5편(4.5%), 2010년은 6편(5.4%), 2011년은 7편(8.0%)이었으며 2012년에는 12편(8.6%), 2013년에는 13편(11.4%), 2014년 10편(8.4%), 2015년 13편(8.9%), 2016년에는 13편(10.1%), 2017년에는 15편(12.9%)을 게재하였다. 매년 JKAN과 ANR에 게재된 질적연구는 10% 미만의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게재된 질적연구의 주요주제로는 간호사의 임상실무 경험이나 간호사에서 다른 직종으로의 역할적응과 같은 ‘실무와 관련된 경험’이 39편(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과 관련된 경험’이 37편(34.8%)이었고 ‘돌봄 제공자의 경험’과 여성 독거노인의 삶, 다문화 대상자의 적응 경험 같은 ‘삶의 경험’이 각 15편(14.2%)이었다. 연구참여자 유형은 ‘간호사’가 33편(3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22편(20.7%), ‘가족’ 14편(13.2%), ‘성인’ 11편(10.4%), ‘노인’ 9편(8.5%), ‘대학생’ 6편(5.7%)이었다. 이 외에 연구참여자의 유형이 환자와 가족, 환자와 간호사, 간호사와 의사 등 2종류 이상인 논문이 11편(10.4%) 있었다.

게재된 질적연구 중 IRB의 승인을 받은 논문은 총 106편 중 87편(82.1%)이었다. 2008년에는 IRB 승인을 받은 논문이 2편(16.7%)이었으며, 2009년에는 3편(60.0%), 2010년에는 4편

(66.7%)으로 점차 증가 추이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 중 100%가 IRB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재된 논문 중 연구의 질과 엄정성을 기술한 논문은 81편(76.4%)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는 Guba와 Lincoln이 제시한 기준이 47편(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Sandelowski가 17편(21.0%), Meadows와 Morse가 4편(4.9%) 순이었다. 그 외에 Corbin과 Strauss, Polifroni와 Welch 등이 있었다. 질적연구 논문의 연구비 지원 여부는 43편(40.6%)이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질적연구 논문 중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한 경우는 26편(24.5%)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석사학위 논문은 2편(7.7%)이었고, 박사학위 논문은 24편(92.3%)이었다.

2. 질적연구 평가

1) 영역 1: 연구팀과 반영

COREQ의 첫 번째 영역은 ‘연구팀과 반영’으로 연구자의 개인적 특성과 연구참여자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관찰과 해석이 연구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독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문항 1은 면담자나 진행자에 대한 설명이 진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질적연구 논문 106편 중 24편(22.6%)만이 면담자나 진행자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었다. 그 중 ‘저자 중 1명’으로 기술된 논문이 12편 있었으며 단독저자가 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N=1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Themes of research	Practice experience	39 (36.8)
	Disease experience	37 (34.8)
	Caregiver's experience	15 (14.2)
	Life-span experience	15 (14.2)
Participant of research	Nurse	33 (31.1)
	Patient	22 (20.7)
	Family	14 (13.2)
	Adults	11 (10.4)
	Older adults	9 (8.5)
	University students	6 (5.7)
	Others	11 (10.4)
Approval of IRB	Yes	87 (82.1)
	No	19 (17.9)
Ensuring research-quality and rigor	Yes	81 (76.4)
	Guba & Lincoln	47 (58.0)
	Sandelowski	17 (21.0)
	Meadows & Morse	4 (4.9)
	Others	13 (16.1)
No	25 (23.6)	
Funding	Yes	43 (40.6)
	No	63 (59.4)
Thesis	Yes	26 (24.5)
	Master's thesis	2 (7.7)
	Doctor's thesis	24 (92.3)
	No	80 (75.5)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Table 2. Domain 1: Research Team and Reflexivity (N=106)

No. Item	Categories	n (%)	
Personal characteristics	1. Interviewer/facilitator	Yes	24 (22.6)
		No	82 (77.4)
	2. Credentials	Yes	31 (29.2)
		No	75 (70.8)
	3. Occupation	Yes	62 (58.5)
		No	44 (41.5)
	4. Gender	Yes	1 (0.9)
		No	105 (99.1)
5. Experience and training	Yes	34 (32.1)	
	No	72 (67.9)	
Relationship with participants	6. Relationship established	Yes	31 (29.2)
		No	75 (70.8)
	7. Participant knowledge of the interviewer	Yes	103 (97.2)
		No	3 (2.8)
	8. Interviewer characteristics	Yes	10 (9.4)
		No	96 (90.6)

편 있었다. 문항 2는 연구자의 자격(PhD, RN)이 진술되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분석 결과, 분석논문 중 31편(29.2%)이 진술되어 있었으며 모두 ANR에 게재된 논문이었다. 문항 3은 연구자의 직업을 묻는 것으로, 62편(58.5%)이 기술되어 있었으며 구체적 직업으로는 대학교수, 보건교사, 임상간호사,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시설장, 임상 코디네이터 등이었다. 문항 4는 연구자의 성별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분석논문 중 1편(0.9%)이 기술되어 있었다. 문항 5는 연구자의 경험, 훈련에 관해 진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기술한 논문은 34편(32.1%)이었으며 대부분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질적연구 관련 학회, 세미나 참석 및 발표, 질적연구방법론 교과목의 수강이나 강의의 한 경험 등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한 논문의 경우에는 어떤 연구자의 경험과 훈련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문항 6은 연구 시작 전에 참여자와의 관계가 수립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분석 결과, 31편(29.2%)에서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문항 7은 참여자가 연구목적이나 연구수행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분석 결과, 103편(97.2%)이 진술되어 있었다. 문항 8은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이나 연구자가 연구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가정 등이 진술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10편(9.4%)에서 진술되어 있었다. 이 중 4편은 연구 현상에 대한 편견이나 선가정이 진술되었으며 6편은 연구의 필요성이나 현상에 대한 지향, 연구의 민감성 확보 기술 부분에서 연구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을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암 환자의 생활세계 경험’(Yang, 2008)을 연구한 연구자의 경우, 간호사로서 암 환자 간호 경험과 가족의 암투병 과정을 겪으면서 연구주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여성 정신분열병 환자의 항정신성 약물 복용체험’(Song, 2011)의 경우, 연구자의 체험 기술 부분에서 연구자가 정신과 근무를 하면서 정신과 환자 여성이 약물복용으로 인해 인공유산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영역 2: 연구설계

COREQ의 두 번째 영역은 ‘연구설계’로 연구의 이론적 틀,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환경, 연구방법을 보고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문항 9는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이론적 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는지 묻는 항목이다. 분석한 질적연구 논문 106편(100.0%) 모두 기술되었으며 현상학적 방법론이 38편

(35.8%)으로 가장 많았고, 근거이론 방법론이 37편(34.9%), 내용분석이 18편(17.0%), 문화기술지 5편(4.7%) 순이었다. 이외에 내러티브, 생애사분석, 주제분석, 실무연구방법론 등이 8편(7.6%) 있었다. 현상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38편 중에서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 Colaizzi의 방법이 16편(42.1%), Giorgi의 방법 10편(26.3%), van Manen 방법이 9편(23.7%)이었으며 이외에 Diekelmann, Dahlberg 등이 3편(7.9%) 있었다.

문항 10은 연구참여자의 선정방법을 묻는 것으로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추출에 관해 기술한 논문은 71편(67.0%)이었으며 이 중 목적적 표본추출은 34편(47.9%)이었고 편의표본추출은 16편(22.5%)이었다. 목적적 표본추출방법 중에서 눈덩이 표출이 23편(32.4%), 이론적 표본추출이 14편(19.7%)이었다. 문항 11은 연구참여자에게 접근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106편(100.0%) 모두 기술되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참여자를 직접 만나 접촉하는 ‘면대면’ 방법이 103편(9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가 26편(24.5%), ‘이메일’ 10편(9.4%)이었다. 문항 12는 표본 크기를 묻는 것으로 분석 결과, 106편(100.0%) 모두 기술되었으며, 표본 크기는 4명에서 50명까지 다양하였다. 이 중에서 11~15명이 42편(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16명 이상이 33편(31.1%), 6~10명이 27편(25.5%), 5명 이하가 4편(3.8%)이었다. 연구방법론별 표본 크기를 살펴보면, 내용분석방법이 평균 22명(range; 8~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기술지는 평균 17명(range; 8~30), 근거이론은 평균 14명(range; 8~24), 현상학은 평균 11명(range; 4~32) 순이었다. 문항 13은 연구참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탈락한 참여자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이를 진술한 논문은 6편(5.7%)이었다.

문항 14는 연구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소를 진술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106편 중 92편(86.8%)이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자나 참여자의 ‘회의실’이 54편(58.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참여자의 집’이 32편(34.8%), ‘의료기관’ 27편(29.3%), ‘카페’ 21편(22.8%) 순이었다. 이 외에도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가 9편,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가 6편, ‘교회’, ‘공원’ 등이 있었다. 문항 15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33편(31.1%)에서 제 3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제 3자의 존재 여부는 카페, 공원, 병동의 다인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에 제 3자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문항 16은 연구대상자의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자료가 진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101편(95.3%)에서 설명 또는 표로 진술되어 있었다.

Table 3. Domain 2: Study Design

(N=106)

No. Item	Categories		n (%)
Theoretical framework	9. Methodological orientation and theory	Yes	106 (100.0)
		Phenomenology	38 (35.8)
		Colaizzi	16 (42.1)
		Giorgi	10 (26.3)
		Van Manen	9 (23.7)
		Others	3 (7.9)
		Grounded theory	37 (34.9)
		Content analysis	18 (17.0)
		Ethnography	5 (4.7)
		Others	8 (7.6)
	No	0 (0.0)	
Participant selection	10. Sampling [†]	Yes	71 (67.0)
		Purposive	34 (47.9)
		Snowball	23 (32.4)
		Theoretical	14 (19.7)
		Convenience	16 (22.5)
	No	35 (33.0)	
	11. Method of approach [†]	Yes	106 (100.0)
		Face to face	103 (97.2)
		Telephone	26 (24.5)
		Email	10 (9.4)
	No	0 (0.0)	
	12. Sample size	Yes	106 (100.0)
		≤ 5	4 (3.8)
6~10		27 (25.5)	
11~15		42 (39.6)	
≥ 16		33 (31.1)	
No	0 (0.0)		
13. Non-participation	Yes	6 (5.7)	
	No	100 (94.3)	
Setting	14. Setting of data collection [†]	Yes	92 (86.8)
		Meeting room	54 (58.7)
		Participant's home	32 (34.8)
		Clinic	27 (29.3)
		Cafe	21 (22.8)
		Others	29 (31.5)
	No	14 (13.2)	
	15. Presence of non-participants	Yes	33 (31.1)
		No	73 (68.9)
	16. Description of sample	Yes	101 (95.3)
No		5 (4.7)	
Data collection	17. Interview guide	Yes	105 (99.1)
		Pilot test	5 (4.8)
	No	1 (0.9)	
	18. Repeat interviews	Yes	67 (63.2)
		No	39 (36.8)
	19. Audio/visual recording	Yes	103 (97.2)
		Audio	101 (98.1)
		Audio & visual	2 (1.9)
	No	3 (2.8)	
	20. Field notes	Yes	49 (46.2)
		No	57 (53.8)
	21. Duration of the interviews (minute)	Yes	104 (98.1)
		< 60	15 (14.4)
60~90		65 (62.5)	
91~120		13 (12.5)	
> 120		11 (10.6)	
No	2 (1.9)		
22. Data saturation	Yes	78 (73.6)	
	No	28 (26.4)	
23. Transcripts returned	Yes	47 (44.3)	
	No	59 (55.7)	

[†]Multiple response.

문항 17은 자료수집과 관련된 내용으로 면담 가이드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예비조사를 수행했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분석 결과, '면담 질문'에 대해 진술한 연구는 105편(99.1%)이었으며 면담 질문과 함께 예비조사(pilot test)를 한 연구는 5편(4.8%) 있었다. 문항 18은 면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분석 결과, 67편(63.2%)에서 반복 면담을 수행했으며, 수행횟수는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였다. 문항 19는 자료수집 시 녹음이나 녹화를 하였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분석 결과, 103편(97.2%)의 연구에서 면담 시 녹음을 하였고, 2편(1.9%)의 연구에서는 추가로 녹화를 하였다. 문항 20은 면담 중이나 면담 후에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49편(46.2%)의 연구에서 현장노트를 작성하였음을 진술하였으며 57편(53.8%)의 연구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문항 21은 면담 시간을 묻는 항목으로 분석 결과, 1회 평균 면담 시간은 '60~90분'이 65편(62.5%)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분 미만'이 15편(14.4%), '91~120분'이 13편(12.5%), '120분 초과'가 11편(10.6%)이었다. 문항 22는 자료포화를 진술하였는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78편(73.6%)의 연구에서 자료포화에 대해 진술하였다. 문항 23은 의견이나 수정을 위해 전사물을 참여자에게 점검받았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이를 진술한 연구는 47편(44.3%)이었다.

3) 영역 3: 분석과 결과

COREQ의 세 번째 영역은 '분석과 연구결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문항 24는 자료코딩에 몇 명의 코더가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항목으로 분석 결과, 코더의 참여인 수를 진술한 연구는 9편(8.5%)이었다. 구체적인 예로는 '2명의 코더에 의해 코딩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기술하였거나, 저자가 1명인 연구에서 연구자가 코딩과정을 통해 개념과 범주, 주제 등을 도출하였다고 기술한 논문을 포함하였다. 문항 25는 연구자가 코딩트리(coding tree)를 진술하였는지 검토하는 항목으로 코딩트리(coding tree)란, 참여자의 진술문으로부터 의미 있는 부분을 뽑는 코딩의 과정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99편(93.4%)의 연구에서 코딩트리(coding tree)가 진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항 26은 수집된 자료에 의해 주제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항목으로, 106편(100.0%) 모두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주제가 도출되었다. 문항 27은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분석 결과, 7편(6.6%)의 연구에서 MAXQDA 10 이나 Nvivo 8.0 또는 ATLAS.ti 6.2 프로그램

Table 4. Domain 3: Analysis and Findings (N=106)

No. Item	Categories	n (%)	
Data analysis	24. Number of data coders	Yes	9 (8.5)
		No	97 (91.5)
	25. Description of the coding tree	Yes	99 (93.4)
		No	7 (6.6)
	26. Derivation of themes	Yes	106 (100.0)
		No	0 (0.0)
	27. Software use	Yes	7 (6.6)
		No	99 (93.4)
28. Participant checking	Yes	61 (57.5)	
	No	45 (42.5)	
Reporting	29-① Quotations presented	Yes	106 (100.0)
		No	0 (0.0)
	29-② Participant number presented	Yes	88 (83.0)
		No	18 (17.0)
	30. Data and findings consistent	Yes	106 (100.0)
		No	0 (0.0)
	31. Clarity of major themes	Yes	106 (100.0)
		No	0 (0.0)
32. Clarity of minor themes	Yes	5 (4.7)	
	No	101 (95.3)	

을 사용하였다. 문항 28은 연구참여자에게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는지에 관한 항목으로 분석 결과, 61편(57.5%)의 연구가 연구참여자로 부터 피드백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문항 29는 주제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문이 있는지, 각각의 인용문이 확인(예: 연구참여자 번호)되는지를 묻는 항목이다. 분석 결과, 106편(100.0%) 모두에서 인용문을 제시하였으며 참여자 번호는 88편(83.0%)에서 제시하였다. 문항 30은 자료와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으로, 106편(100.0%) 모두 자료와 결과가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항 31은 주요주제(major theme)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항목으로 분석한 106편(100.0%) 연구 모두 명확하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항 32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나 부수적인 주제(minor theme)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5편(4.7%)에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술지인 JKAN과 ANR에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간호학술지가 간호학문의 지식보급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질적연구 게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논문들의 전반적 특성과 COREQ 분석 틀에 따른 질적연구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간호학술지인 JKAN과 ANR에 게재된 총 1,223편의 논문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질적연구 논문은 106편으로, 매년 5~15편이 게재되었고, 게재율은 전체 논문 대비 8.7%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간호학회지의 질적논문 분석(Park & Kim, 2015)에서 매년 1~3편이 게재되고, 여성건강간호학회지의 질적논문 분석(Lee et al., 2012)에서 매년 1~4편이 게재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게재된 정신간호학회지 논문분석 연구(Nam, 2014)에서 질적연구 게재율을 11.4%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낮은 편이며, Impact Factor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간호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한 국외 연구(Mantzoukas, 2009)에서 질적연구의 게재율을 37%로 보고한 것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간호학은 인간, 환경, 건강, 간호의 메타패러다임 속에서 대상자의 안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특정한 맥락에서 고찰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Yi et al., 2018). 그런데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간호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엇보다 질적연구의 수행이 증가하여야 하고 이는 학술지 투고 증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질적 논문의 주요 연구주제로는 다양한 병원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환자 돌봄 경험, 리더십, 인간관계 등의 임상 실무경험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역할적응 같은 '실무와 관련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상호작용의 의미 발견에 초점을 두는 질적연구의 주요 목적(Yi et al., 2018)과 부합하는 주제라고 여겨진다. 이외에도 한센병, 뇌전증, 크론병, 헌터증후군, HIV 감염 등 발병률이 적은 희귀난치병, 양적연구에서는 흔히 다루지 않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질병과 관련된 경험'이 있었으며 '돌봄 제공자의 경험'과 '삶의 경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처럼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질적 논문의 연구주제 다양화는 더욱 폭넓은 연구 영역으로 이어져 현상에 대한 통찰력 제공에서 더 나아가 간호 실무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Maxwell, 2013; Suh et al., 2007; Yi et al. 2018), 이는 질적연구의 학문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질적연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질적 논문의 연구참여자 유형에는 간호

사, 환자, 가족, 성인, 노인, 대학생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유형이 단일하였으며, 다중의 연구참여자 유형을 선정한 논문은 11편에 불과하였다. 연구방법론 별로, 다중의 연구참여자 유형을 선정한 비율을 살펴보면, 문화기술지가 전체 5편 중 3편(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용 분석이 전체 18편 중 6편(33.3%), 근거이론 방법론 1편(2.7%), 현상학 1편(2.6%)이었다. 연구방법론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특정 현상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기 위해 여러 관점의 참여자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연구 현상을 심층적이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연구 현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하므로(Patton, 2015) 연구방법론에 따라 고려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에서 IRB 심의 절차를 통해 연구를 수행했음을 기술한 논문은 87편(82.1%)으로 2013년 이후 게재된 논문은 모두 IRB 심의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에서 2008년 JKAN의 논문을 분석한 Shin 등(2010) 연구에서 7.7%로 보고한 것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수행과정에서 IRB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윤리 교육을 제공한 학회의 노력과 더불어, 학술지 차원에서 2012년 12월 투고지침 개정을 통해 IRB 심의를 통과한 연구만을 접수하는 투고규정의 영향도 함께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한편, 질적연구의 특성상 면담 수행 시 설문지 조사보다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길어진 면담시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불편함을 고려해야 하며, 면담 장소와 시간 선정 시 참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Silverman,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행한 바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윤리적 고려의 기술 부분에 있어, 양적 연구와는 다른 질적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질과 엄정성을 기술한 논문은 81편(76.4%)으로 나타나, Suh 등(2007)과 Shin 등(2010)의 선행연구에서 각각 33.3%, 64.5%로 보고한 수치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독자에게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여겨지며,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생각된다. 분석논문에서 연구의 질과 엄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Guba와 Lincoln의 기준을 살펴보면, 1985년에 발표된 신빙성(credibility), 적용가능성

(transferability), 확실성(dependability),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을 28편의 논문에서 적용하였으며, 1981년 발표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은 16편에서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Guba와 Lincoln (1989, 1991, 1992, 1994, 2004)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참고문헌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논문도 6편 있었다. 사용된 기준과 참고문헌의 일치하는 연구의 질과 엄정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과 확인이 필요하겠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uba와 Lincoln (1985)의 기준 이외에도 연구의 질과 엄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과 전략은 다양하다. 엄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연구자의 책임이지만,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와 독자이다. 연구참여자와 독자는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판단한다(Rolfe, 2006).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 과정과 결과를 일관성 있고 포괄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진실성(trustworthiness)의 기준과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Hays, Wood, Dahl, & Kirk Jenkins, 2016). 또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적절한 평가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질적연구의 엄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질적연구가 사회와 인간을 탐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며(Maxwell, 2013), 연구결과는 간호학문과 정책 및 실무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연구방법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간호학술지의 심사과정에서 연구의 질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자들이 더 충실히 기술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OREQ 분석 틀에 따른 질적연구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면담 수행자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논문 중 82편(77.4%)에서 면담을 누가 수행했는지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면담 수행자에 대해 진술된 논문 24편(22.6%) 중에서도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자 3인 중 1인이 수행했다고 기술하는 등 어떤 저자가 면담이나 포커스 그룹의 진행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추후에는 독자가 연구 진행 과정을 파악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면담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자의 자격(PhD, RN)을 기술하지 않은 논문은 75편(70.8%)이었으며 이 중 JKAN의 논문 73편은 모두 기술되지 않았다. 이는 JKAN의 투고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논문 중 연구자의 직업이 기술되어 있는 논문은 62편(58.5%)이었다. 특히 JKAN의 경우, 첫 페이지에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기재하지 않는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라, 연구자의 직업이 대부분

본문에 기술되어 있었다. 연구자의 성별을 기술한 논문은 1편에 불과했으며 이는 ‘남자간호사의 이직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Kim & Lee, 2017)였다. 연구자의 성별은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연구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Simpson, 2004). 연구자와 참여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연구자는 민감성을 가지고 참여자에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성별의 특성이 반영된 연구주제일 때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성별을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Giacomini & Cook, 2000). 연구자의 경험이나 훈련에 대한 진술에서는 분석논문 중 72편(67.9%)에서 이에 관해 기술하지 않았다. 질적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을 연구도구로 삼으며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연구자의 개인적 품성과 전문성 정도에 따라 면담의 질이 달라지므로(Silverman, 2011) 연구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추후에는 연구결과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과 훈련을 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연구의 경우 각각의 연구자들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기술된다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형성’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 신뢰형성 정도를 의미하는데, 본 분석논문 중 75편(70.8%)에서 이에 대한 노력이 진술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신뢰 관계형성에 대한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논문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뢰 관계가 형성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나 신뢰 관계 정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질적연구의 주요 자료는 면담으로부터 생성되므로 성공적인 면담 수행은 질적연구의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ilverman, 2011).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신뢰형성 정도는 면담의 전 과정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자료의 신빙성(credibility)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Guba & Lincoln, 1985)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면담자의 특성에 대한 진술은 연구자의 편견이나 가정, 연구자의 관심 등의 진술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분석논문에서 이를 진술한 논문은 10편(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5편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였다. 이는 ‘현상에 대한 지향’에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가정, 관심 등을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론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연구 현상이나 연구참여자에 관한 연구자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 영향을 숙고하게 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이 최소화된 중립성이 보장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Guba &

Lincoln, 1981).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확인하고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설계 영역에서 분석대상 대부분 논문에 연구방법론을 단순히 질적연구라고 기술하지 않고, 현상학, 근거이론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술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여겨지나, 적용한 연구방법론이 어떤 측면에서 해당 연구주제에 적합한지에 대해 각 연구방법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연구 현상을 바라보는 철학적 입장에 관한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Patton, 2015). 한편, 일부 논문에서 내용분석과 주제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질적연구방법론이 아닌 질적연구 수행 시 자료분석방법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질적연구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선정 시 표집 방법에 관해 기술한 논문은 분석논문 중 71편(67.0%)으로, 주로 눈덩이 표출과 이론적 표출의 목적적 표출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질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례를 선정하는 질적연구의 표본추출전략(Patton, 2015)을 잘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질적연구의 표집 방법으로 부적절한 편의표출을 사용한 논문이 16편(22.5%)으로 나타났으며 표집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이 참여자 선정기준만 기술한 논문은 35편(33.0%)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1개 학기 이상의 임상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대상자의 남편이 HIV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이상인 자 등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자를 연구참여자로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질적연구의 표집 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질적연구 표본추출의 두 가지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함을 고려해야 하며(Patton, 2015)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근거이론연구방법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의 경우 연구자는 면담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여 분석한 면담의 결과에 따라 다음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선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한 대부분 논문에서 자료의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연구참여자를 면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었으며, 단 2편만이 면담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여, 분석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추가로 선정해나갔음을 기술하고 있었다. 근거이론 연구의 경우, 이론적 표본추출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연구의 신빙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Corbin & Strauss, 2015). 따라서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범주를 기초로 하여 이론적 표본추출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하며, 논문의 심사와

정에서도 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접근방법과 표본의 크기는 분석대상 논문 모두에서 기술되었다. 연구참여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대부분 면대면 접근법이었으며, 이는 Lee 등(2012)의 연구에서 면대면 접근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표본 크기를 살펴보면 11~15명이 42편(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 4명에서 최대 28명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연구방법론별로 살펴보면, 근거이론 방법론의 참여자 수는 최소 8명에서 최고 24명으로 평균 14명이었으며, 현상학은 최소 4명에서 최대 32명으로 평균 11명이었다. 문화기술지는 최소 8명에서 최고 30명으로 평균 17명이었다. Crewswell (2007)은 근거이론 방법론의 적정 표본 크기를 범주가 포화되고 이론을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로, 20~30명이 적당하며, 현상학은 10명, 사례 연구는 4~5명, 문화기술지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6개월~1년) 머물면서 관찰, 면담 등을 활용해야 하므로, 참여자의 수 보다는 연구유형에 따른 자료수집기간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논문과 비교해 보면, 근거이론 방법론은 적정 참여자 수보다 적었으며, 현상학과 문화기술지는 연구 참여자 수가 적절하였다. 하지만 질적연구의 표본 크기 기준은 연구주제와 분석방법에 따라 다르며, 연구 패러다임과 연구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연구참여자가 연구목적에 맞는 지, 모집단을 대표하는 지, 효과적으로 모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Brantlinger et al., 2005). 따라서, 질적연구에서 연구자가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 표본이 과연 연구문제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는가의 여부이다(Yi et al., 2018). 즉, 연구자가 현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추출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자료의 포화상태로 언급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자료의 포화(saturation)를 진술한 논문은 78편(73.6%)으로 나타나, 표본 크기를 모두 진술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 자료의 포화상태 여부가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연구환경에서 자료수집 장소로는 회의실이 54편(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참여자의 집이 32편(34.8%), 의료기관 27편(29.3%), 카페 21편(22.8%) 순이었다. 이 외에 공원'이나 '병동의 다인실' 등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기술하지 않고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로 기술하기도 하였다. 자료수집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면담에 집중할 수 있고 참여자의 반응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Silverman,

2011). 또한, 연구자는 면담 환경에서 연구참여자 외에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논문 중에서 제 3자가 존재한 논문은 33편(31.1%)이었으며 구체적인 장소로는 카페, 공원, 병실 등이었다. 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면담일 경우, 제 3자의 존재는 연구참여자의 반응이나 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면담 환경 조성 시 연구 주제를 고려해야 하며, 면담에 적합하도록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 3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면담을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해 언급하고, 면담 시 참여자의 충분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연구자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분석논문에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진술한 논문은 101편(95.3%)으로 대부분 논문에서 이를 기술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보고하는 것은 독자가 연구참여자의 상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그룹의 관점과 비교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Tong et al., 2007) 연구자들이 연구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 가이드와 예비조사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105편(99.1%)에서 주요 면담 질문에 관해 기술하고 있었다. 이처럼 면담 가이드를 기술하는 것은 독자가 연구의 주요 초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격려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한다(Tong et al., 2007). 하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소수의 면담 질문만 제시되고 있어, 면담 질문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투고논문의 부족한 지면의 영향은 아닌지 고려하여, 학술지 차원에서 질적연구의 투고논문 페이지 제한을 융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주요 면담 질문을 가지고 예비 조사를 수행한 연구는 단 5편(4.8%)에 불과하였다. 면담 시 참여자의 풍부한 경험을 끌어내는 것은 어떤 면담 질문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면담 질문은 참여자가 연구의 중심 현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들려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참여자의 관점과 수준을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Yi et al., 2018). 예비 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이 면담 질문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면담 질문 작성 시 예비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반복적인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돕는다(Tong et al., 2007). 본 분석논문에서는 67편(63.2%)에서 최소 2회에

서 최대 10회의 면담을 수행하였고, 39편(36.8%)은 반복 면담이 수행되지 않았다. 10회 면담이 반복 수행된 연구는 말기암 환자 대상으로 1회 면담시간은 20~30분이었으며(Kwak & Lee, 2013),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짧은 시간의 면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부 논문에서는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고만 기술하고 있어 정확히 몇 회인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분석논문에서 코딩참여자에 대해 9편(8.5%)만이 진술하고 있었다. 질적 자료분석에 다수의 코더(coder)가 참여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Tong et al., 2007) 질적연구 분석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독 연구의 경우, 전문가를 분석에 참여하도록 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연구의 경우 코딩참여자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다수의 코딩참여자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분석논문에서 자료분석 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논문은 7편(6.6%)뿐이었으며, 이는 성인간호학회지의 질적연구를 분석한 Kim, Hwang과 Shin (2011)의 연구에서 91편 중 1편으로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이 점차 용이해지고 기능이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 프로그램과 달리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코드를 개발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등의 결과물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료 관리의 기능이 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Seale, 2000). 결국, 분석은 여전히 연구자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적감사 기능은 팀원 간의 자료 관리와 해석에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므로(Seale, 2000) 공동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분석 결과, 연구결과에 대해 참여자의 피드백(member check)을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은 61편(57.5%)이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피드백은 연구참여자의 의미와 관점이 연구자의 아젠다(agenda)와 지식에 의해 축소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의 결과해석에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Tong et al., 2007). 하지만, 대부분 참여자의 피드백 여부만 기술하고 있어, 어떤 연구참여자에게 피드백을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참여자의 피드백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결과의 수정에 적용되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보고에서는 자료 결과와 해석에 대한 진실성(trustworthiness)과 투명성(transparency)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용문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된 자료와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하고, 주요주제는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Miles & Huberman, 1994). 본 분석논문에서는 106편 모두 인용문을 제시하였으나, 각각의 인용문에 참여자 번호를 부여한 논문은 88편(83.0%)이었다. 그리고 분석논문 106편 모두, 제시된 자료와 연구결과가 일치하였으며 주요주제가 명확하게 진술되었다. 그러나 부수적인 주제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술된 논문은 5편(4.7%)에 불과하였다. 연구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지엽적이고, 소수의 의견이지만 현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간호학술지인 JKAN과 ANR에 게재된 질적연구 논문을 COREQ의 기본 틀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연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COREQ의 3개 영역인 ‘연구팀과 반영’, ‘연구설계’, ‘연구분석과 결과’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팀과 반영’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관계 형성과 연구 윤리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과정 등의 정보제공 진술이 잘 이루어졌으나 공동연구인 경우 구체적인 면담 수행자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형성과 연구자의 가정이나 선 이해에 관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설계’ 영역에서는 대체로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면담 지침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과 현장노트, 연구참여자의 전사물 확인 여부의 보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석과 결과’ 영역에서는 분석 결과가 명확히 보고되고 결과와 보고가 일치되었지만, 코딩참여자의 수와 질적자료분석 소프트웨어 사용, 다양한 사례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질적연구 수행 시 본 연구결과에서 보고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 항목들에 관해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하며, 학회지 논문 심사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질적연구결과의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보고를 위해서는 각 학회지 차원에서 논문투고 시, 질적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페이지 수 제한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COREQ는 심층 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면담을 활용한 질적연구 보고를 위한 지침으로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에 따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각각의 질적연구방법론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이 포함된 체계적인 분석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연구결과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RCID

Jang, Hye-Young <https://orcid.org/0000-0003-0934-7679>

Song, Eun-Ok <https://orcid.org/0000-0002-8578-7062>

REFERENCES

- Brantlinger, E., Jimenez, R., Klingner, J., Pugach, M., & Richardson, V. (2005). Qualitative studies in special education. *Exceptional Children, 71*(2), 195-207.
<https://doi.org/10.1177/001440290507100205>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et al. (200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5), 1207-1218.
<https://doi.org/10.4040/jkan.2000.30.5.1207>
- Corbin, J., & Strauss, A. (201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7). CASP (Qualitative research) checklist. *Qualitative Research Checklist, 31*(13), 449.
<http://www.casp-uk.net/casp-tools-checklists>
- Giacomini, M. K., & Cook, D. J. (2000). Users' guides to the medical literature: XXIII. Qualitative research in health care A.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valid?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4*(3), 357-362.
<https://doi.org/10.1001/jama.284.3.357>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Hays, D. G., Wood, C., Dahl, H., & Kirk Jenkins, A. (2016). Methodological rigor i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A 15 year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4*(2), 172-183.
<https://doi.org/10.1002/jcad.12074>
- Jang, S. (2005).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by the classification of knowing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1), 206-212. <https://doi.org/10.4040/jkan.2005.35.1.206>

- Jeong, G. H.,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 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7), 1420-1425.
- Kang, H. (2002). Analysis of statistical method appli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6), 929-935.
- Kim, H., & Lee, J. (2017). Turnover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1), 25-38.
- Kim, Y. K., Hwang, S. Y., & Shin, S. J. (2011).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89-2011).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3(6), 633-641.
- Kwak, S. Y., & Lee, B. S. (2013). Experience in acceptance of hospice by 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A phenomenological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6), 781-790.
- Larson, E. L., & Cortazal, M. (2012). Publication guidelines need widespread adoption.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5(3), 239-246. <https://doi.org/10.1/jclinepi.2011.07.008>
- Lee, E. J., Song, J. E., Kim, M., Kim, S., Jun, E. M., Ahn, S., et al. (2012). Analysis on reports of qualitative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8(4), 321-332.
- Lundgren, I., Begley, C., Gross, M. M., & Bondas, T. (2012). Groping through the fog: A meta synthesis of women's experiences on VBAC (Vaginal birth after Caesarean section). *BMC Pregnancy and Childbirth*, 12(1), 85-96. <https://doi.org/10.1186/1471-2393-12-85>
- Mantzoukas, S. (2009). The research evidence published in high impact nursing journals between 2000 and 2006: A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4), 479-489.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8.12.016>
- Maxwell, J. (2013).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3rd ed.). Walnut Creek, CA: Sage.
- McEwen, M. (2007). *Philosophy, science, and nursing. Theoretical basis for nursing* (2nd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Miles, M.,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Nam, K. A. (2014).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3(4), 311-321.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4.311>
- Park, H. S., & Kim, Y. M. (2015).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published b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4), 442-451. <https://doi.org/10.7739/jkafn.2015.22.4.442>
- Patton, M. Q. (2015).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4th ed.). California, Thousand Oaks, CA: Sage.
- Rao, T. S., & Tharyan, P. (2011). Editorial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 transparency and validity of published research. *Indian Journal of Psychiatry*, 53(3), 183-186. <https://doi.org/10.4104/0019-5545.86793>
- Rolfe, G. (2006). Validity, trustworthiness, and rigor: Quality and the idea of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 304-310.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6.03727.x>
- Seale, C. (2000). Using computers to analysis qualitative data. In D. Silverman (Ed.),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handbook* (pp. 251-267). London: Sage.
-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1), 139-149. <https://doi.org/10.4040/jkan.2010.40.1.139>
- Silverman, D. (2011). *Interpreting qualitative data: A guide to the principles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London: Sage.
- Simpson, R. (2004). Masculinity at work: The experiences of men in female dominated occupation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8(2), 349-368. <https://doi.org/10.1177/09500172004042773>
- Song, E. J. (2011). The lived experience of the women with Schizophrenia taking antipsychotic medi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3), 382-392.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1013-1019.
- Tong, A., Sainsbury, P., & Craig, J. (2007).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A 32-item checklist for interviews and focus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19(6), 349-357. <https://doi.org/10.1093/intqhc/mzm042>
- Yang, J. H. (2008). The actual experiences of the living world among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1), 140-151.
- Yi, M. S., Ko, M. H., Son, H. M., Kim, J. H., Kang, S. L., Oh, S. E., et al. (2018). *Qualitative research*. Paju: Soomoonsa.